

참사람 36.5°C

Vol. 29 | 2023년 6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CONTENTS 목차

발행일

2023년 6월 2일 금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

참사람 36.5°C

Vol. 29 | 2023년 6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Cover Story

사춘기가 될 수록
자녀와 소통하기 어렵다며
호소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결국 대화의 시작과 끝이
잔소리로 귀결되지만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원활한 소통의 비법은 다름아닌
'칭찬'에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식탁에는 잔소리를
두 스푼 빼고,
칭찬과 격려를
한 스푼씩 더해보면 어떨까요?



04

참사람을 말하다

세상에서 가장 맛깔난
식탁의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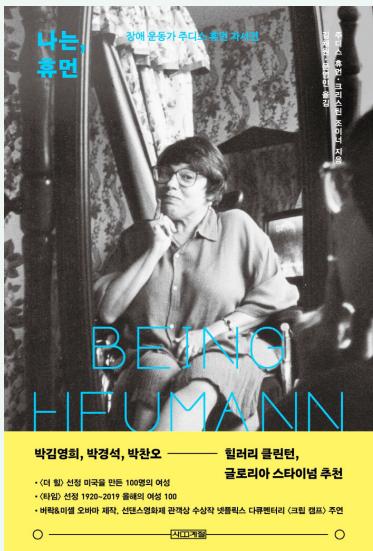


06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선물

글 _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김민지



08

책으로, 참사람으로
‘나는, 휴먼’을 읽고
서로 다르지만 소중한 우리
글 _ 서문여자고등학교 최지안

‘나는, 휴먼’은 어떤 책?

글 _ 안광복
철학자/중동고등학교 교사



13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6월, 청소년을 위한 전국의
페스티벌·문화행사 안내



18

집에서 시작하는 엄마표 경제교육
노하우 특강 스케치



10

현장 속으로
ChatGPT와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취재기



16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네컷툰 수상작품 소개



19

2023(제9회) 교보교육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깔난

식탁의 비법



아빠 (식탁에서)OO야, 밥 다 먹었어? 좀만 쉬었다 바로 숙제해~

아이 (핸드폰 계속 보면서) 내가 알아서 할께요. (문 닫고 들어간다)

아빠 (조금 뒤) 방금 전에 물 마신다고 나왔는데 또 나와?
제발 엉덩이 좀 붙이고 있어.

아이 알았어! 알았다고요!!!

아빠 근데 너, 숙제는 얼마나 했냐?
(문제집 들춰보며) 뭐야, 지금까지 한 게 겨우 이거야?

아이

아빠 물 먹는다 들락거리고, 핸드폰만 보고! 그니까 집중
못하지.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도 모자를
성적에 맨날 게임만 하고.... 넌 걱정도 안 되냐?

아이 (방문 꽁 닫으며) 아이씨X, X나 열받네.

아빠 야, 너 어디서 부모한테 막말 해? 너한테 들인 학원비가
얼만데 이 따위 밖에 못해? 공부 안 할 거면 학원 때려 쳐!

아이 잘 됐네! 누가 학원 보내 달라 했어요?

6학년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제 아이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노는 것만 좋아해요. 틈만 나면 옷가게, 노래방 가고요, 가방에 텐트랑 비비크림은 필수로 넣어 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에서 짧은 치마랑 크롭티를 사서 옷장에 숨겨 놨더라고요. 엄마 몰래 화장하고 짧은 옷 입고 다니 길래 한 소리 했더니 “다른 애들은 나보다 더한데 왜 나한테만 그래?”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의 카톡 대화방을 슬쩍 봤는데 욕이 한바닥이에요. 친구들에게 그러면 되냐고 했더니 “그냥 하는 거”라며 저를 노땅 취급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기타를 배우겠대요. 어차피 공부도 안하니 기타라도 배워라 하는 맘에 냉큼 사줬는데 며칠 하다 손가락 아프다며 그만두더라고요. 맨날 찔끔하다 말고... 이런 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 두 사례를 보니 어떠세요?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번쯤 아이와 갈등, 말다툼을 경험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순하고 말도 잘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차갑게 변합니다. 조금만 이야기해도 잔소리로 알아듣고 짜증부터 내고요. 한 마디라도 더할라치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했지 실제는 안 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는 속이 터집니다. 속상한 마음에 그동안 꾹꾹 참았던 잔소리를 다시 하곤 합니다. 자꾸 부딪치다 보니 ‘또 싸울까 싶어’ 이젠 말을 건네기도 겁납니다.

**“ 그러면 부모는 왜 잔소리를 할까요?
다 아이 잘 되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뇌는 잔소리를 들을 때 작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미국 피츠버그의대와 UC버클리, 하버드대 공동 연구팀은 평균 연령 14세의 어린이 32명에게 자신들 어머니의 잔소리를 녹음한 음성을 30초 정도 들려주고 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 조절 영역과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는 영역의 활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잔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의 뇌는 사회적 인식 처리를 중단하며, 부모의 심리상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 청소년들은 전전두엽의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비현실적 긍정주의’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자기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거죠. 특히 무리 지어 다수가 행동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은 더 커집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후에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입 아프게 떠들었던 말이 하나도 아이 머리에 남지 않는다니 참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와 청소년 자녀, 잘 소통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칭찬과 격려에 답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시의적절한 칭찬은 청소년들의 마음과 머리를 열어줍니다. 부모의 말을 훨씬 귀담아 듣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칭찬과 격려는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일등 공신입니다. 실제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실패를 덜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불확실하거나 미숙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

찬을 받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도전의식과 문제해결 능력이 높아집니다.

가끔 “칭찬을 하고 싶어도 도무지 할 게 있어야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거리를 찾는 안목과 인내만 있다면 칭찬 받지 못할 아이는 없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칭찬할 점을 찾을 때 까지 끝까지 관찰하면 반드시 보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잘하기 위해,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가 말한 ‘청소년 자녀의 삶을 바꿀 8가지 칭찬법’ 중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랑만큼 효과적인 칭찬과 격려는 없습니다.



첫째,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아이가 살아 있음에, 지금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이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세요. 그럴 때 아이는 비로소 발전합니다.

결과보다 노력한 과정과 가능성을 칭찬해주세요.



둘째,

아이가 100점을 맞아 왔을 때 “아야! 멋지다”가 아니라 “그 동안 놀고 싶은 것도 참으며 열심히 공부했구나. 네가 기쁘니 엄마도 기쁘다”라고 말해주세요. 과정 속에서 자녀가 애쓴 부분을 찾아내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세요.

가능한 공개적으로, 소중한 사람 앞에서 칭찬하세요.



셋째,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장점을 이야기하면 칭찬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전해들은 칭찬은 기쁨과 자부심을 더해주며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녀에게 칭찬은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자녀도 부모님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하려다 서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밝게 웃으며 짧게 칭찬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도록 합니다.

“ 어떠세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칭찬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천이 어려울 뿐이지요. 그래도 어차피 하는 말, 자녀에 머리에 안 들어가는 잔소리보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백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잔소리 두 스푼 빼고, 칭찬 한 스푼, 격려 한 스푼 넣은, 세상에서 가장 ‘맛깔스런 요리’를 차려보세요.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선물

글 _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김민지

이 글을 통하여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박준빈 교수님과 함께한 모든 나날들, 보살핌 받았던 그 시간 속에서 느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작년까지 선천성 폐동맥고혈압과 아이젠맹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장기 입원 중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기적적으로 심장과 폐 동시이식을 받게 되어 현재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힘들었던 투병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아닌 담당 교수님의 세심한 마음씀씀이 덕분이었다. 병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식 외의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는 약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수십 알의 약을 먹으며 버텼는데 병의 악화는 걸음을 수 없었고, 마지막 약인 레모듈린 주사약을 투약해야만 했다. 이 약은 몸에 부착을 해서 일회용 카메라 크기의 기계로

용량을 조절하는 형태인데, 72시간마다 약물 교체해야 한다. 투약 부위를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약물인지 알기에 교수님께서 내게 그 약만은 쓰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복수는 찰대로 차고 다리는 점점 부어 어쩔 수 없다고 하셨을 때 괜히 그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교수님 잘못도 아닌데.

애써 웃으시며, 우리 잘해보자고 힘을 북돋아 주셨는데 앞에선 씩씩하게 대답하고서 나중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코가 따끔 거린다. 복수가 많이 차서 1년 동안 바지를 입지 못해 원피스만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은 미용실 직원께서 나에게 임부복이 예쁘다고 말했다. 마음에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내리는 듯 했지만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외래진료 가는 날 이 일화를 얘기 했더니 “거 참, 월 모르시고 말을 하시네...”라며 그 분 대신 미안해하는 표정을 하셨던 교수님.

교수님은 매일 아침, 오후 두 번씩 빠지지 않고 회진을 도셨고 바쁜 시간대에도 2~30분씩 설명을 차근차근해주시고 가셨다. 그럼에도 항상 웃는 모습을 잊지 않았으셨다. 회진을 다녀가시면 옆에 있던 분들이 담당 교수님이시냐며 부러워 하던 분들도 다수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내게 말을 거셨고 내가 병실에 없을 땐 나를 찾아 복도까지 걸음하시며 상담을 잊지 않으셨다. 또 항상 내가 똑똑하고 강한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 잃었던 자신감도 생겼다. 교수님의 칭찬에는 힘이 있어서 덜컥 겁이 나도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울고 싶은 마음에도 누가 간지럼을 태우듯 피식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았다. 오히려 내가 울면 교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것만 같았고 그래서 끝까지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교수님께 작은 선물을 드리는 날에는 엄청 기뻐하시며 그 선물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시기도 했다.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교수님을 존경하며 동경하는 마음은 오랜 투병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근원이기도 하다.

말기일 때는 교수님께 어디 가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이 병원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래요. 우리 끝까

지 같아 가요.”라는 굳건한 대답이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올 수가 없었다.

교수님은 환자들에게 특히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는데 웬지 환자와 보호자, 의사 이렇게 한 ‘팀’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불안한 나와 보호자인 언니에게 아주 안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단어였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일을 하셨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에 자주 오시지 못했다. 언니와 나는 병원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찾으며 하루하루 보냈고 교수님은 나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언니에게도 위로의 말로 다독여 주셨다.

이식을 기다리던 말기 시절, 너무 아파서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 들고는 했다. 이식을 위해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현실에 죄책감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담당 교수님은 오히려 이식은 공여자의 마지막 ‘선택’이며 그런 마음 또한 내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 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런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한심했다. 그래서 생각했다. ‘살아가자. 해야 할 일과, 먹고 싶은 음식과, 누군가에게 전해줄 이야기를 떠올리며 살자. 비록 겨우 하루를 버티는 삶이라도, 내일 아침에 먹는 시리얼이 좋아서라도 살아가자.’

이식 전날 우는 나에게 자신도 내 나이 때 폐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때의 자신보다 내가 훨씬 더 용감한 것 같다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셨다. 그 말이 마음에 아주 오래 남았다. 내가 정말 용감한 사람인가 싶었고, 다음에는 나도 교수님처럼 용기가 필

요한 이에게 전해주고픈 말이라 생각했다.

이식한 후에는 담당 교수님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나를 면발 치에서 마음써주고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중환자실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밖에서 내가 괜찮은지 여러 차례 지켜보시다가 가셨다는 것을 다른 분을 통해 전해 들었다.

며칠 전 교수님께서는 미국으로 2년 동안 연수를 가신다면 한국을 떠나셨다. 마지막까지도 내게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따뜻한 인사를 잊지 않았셨다.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교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고는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고 가셨다. 나중에 청첩장 보내면서. 덧붙여 교수님께서는 자신 또한 어렸을 때 했던 폐 수술의 흉터에 아직까지도 이물감이 든다면서, 수술 환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이야기를 하셨다. 정말 끝까지 멋있으신 분이다. 내가 본 의사 중에 가장 인간답고 참된 의사라고 생각이 된다.

나에게도 단조로운 일상이 찾아오길 오랜 시간 바라왔다. 이제 폐동맥 고혈압도 아이젠맹거 증후군도 없다. 하지만 지난날의 시간들은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 같다. 지금은 건강해졌지만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야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안정적이게 지내는 걸 보니 희망은 끝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감정이라는 말이 맞다. 오랜 시간 병실 공간이 전부였던 나에게 하루하루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교수님께 꼭 전하고 싶다.



'나는, 휴먼'을 읽고 서로 다르지만 소중한 우리

글 _ 서문여자고등학교 **최지안**



안녕, 정서야? 어느새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나는 너를 만난 날의, 그리고 너의 8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 단풍이 지고 겨울이 오려 추워지는 그때에 우린 공원에서 처음 만났어. 옆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시청에서 진행하는 키링 만들기 행사에 재미있게 참여하고 같이 매점을 가려는 순간 신나게 달려가려는 나와 달리 머쓱한 표정에 훨체어에 앉아 있는 널 보게 되었어. 당황함도 잠시 네 어머니께서 오셔서 훨체어를 끌어주신 덕에 함께 매점으로 가 과자를 먹었지.

처음 훨체어를 탄 너를 봤을 때, 8살이었던 나는 조금 당황했어. 하지만 10년이 지난 18살의 내가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당황했던 이유를 알 거 같더라. 난 장애에 놀랐던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다를 것 없이 재밌게 떠들며 대화한 네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에 대한 내 편견에 대해 놀랐던 거였어.

너와의 그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 너에게 '나는, 휴먼'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에디스 휴먼은 어렸을 적 소아마비를 겪고 그 후유증으로 걸을 수 없게 되었어. 어렸을 때 휴먼은 장애의 큰 벽을 잘 알지 못했다고 해. 작은 마을에서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모와 장애로 놀리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냈으니깐.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부모님의 눈물 어린 노력이 숨겨져 있었어.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휴먼의 입학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자, 부모님은 발을 벗고 나서 몇 년을 알아본 결과 4학년이란 나이에 겨우 학교에 갈 수 있었다고 해. 하지만 학교에서도 듣는 나조차 눈물을 글썽이게 하는 서러운 일들이 꽤 많았어.

휴먼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어. 그리고 '보통'의 학생들이라면 졸업식에 단상에 올라가 받아야 될 상을. 장애를 이유로 단상에 오르지 못했고 결국 강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과 선생

님들의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어. 그저 누군가가 휴먼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데 왜 다들 외면했을까?

이 밖에도 여러 서려운 일들이 있었지. 하지만 이런 서려운 일들을 혼자서 울고만 있지 않은 휴먼은 소리를 냈어. 실력이 있었지만 장애로 거부당한 교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애인 시민권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지. 그는 장애를 이유로 국가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들에 차별을 두지 말라는 시위를 하며 몇 날 며칠을 자지도, 먹지도 씻지도 못했어. 휴먼이 주장하는 이 내용,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휴먼의 모습을 보고 여러 장애인들도 힘을 내어 시위에 참여했고 결국 10년 뒤인 1990년에 휴먼이 말한 이 내용은 미국 장애인 법으로 제정되었어. 너무 대단한 분이시지 않아? 나라면 이런 대단한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아니 가질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나 자신에 대한 원망과 사회에 대한 분노로 지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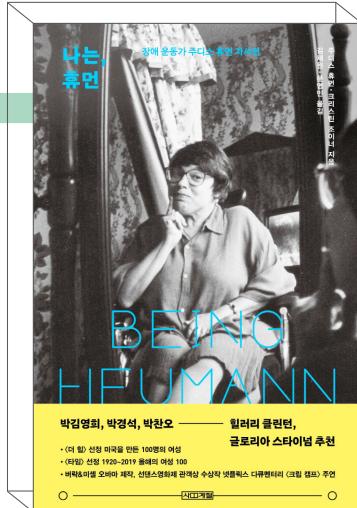
정서야, 내가 이 책을 너에게 추천하는 것이, 너에게 지금 당장 매일 매일 시위에 나가고 너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난 그저 네가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훨체어가 너무 싫어지는

순간이 올 때 너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은 밖을 볼 때마다 해맑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너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너 스스로가 미울 수도 있어. 근데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일지도 몰라. 나도 오르지 않는 내 성적을 볼 때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거울을 볼 때면 다른 애들은 저렇게 예쁜 데 왜 나만 못생겼지라는 생각에 내가 미울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나를 원망하면 안 되더라.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저 나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더라. 너 자신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나아갈 길만 사라져.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했어. “만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3류 시민으로 본다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당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과 함께 싸워줄 친구들이다.” 너에게는 이미 나를 포함하여, 너와 함께 싸워줄 친구들이 있잖아. 너는 얼마든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은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사실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느낀 게 참 많았어. 휴먼을 보며 용기 있는 자세를 볼 수 있었고 또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지. 정서야,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꼭 같이 한 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편지를 마치게, 나의 소중한 친구야 안녕.

- 너를 사랑하는 지안이가



‘나는, 휴먼’은 어떤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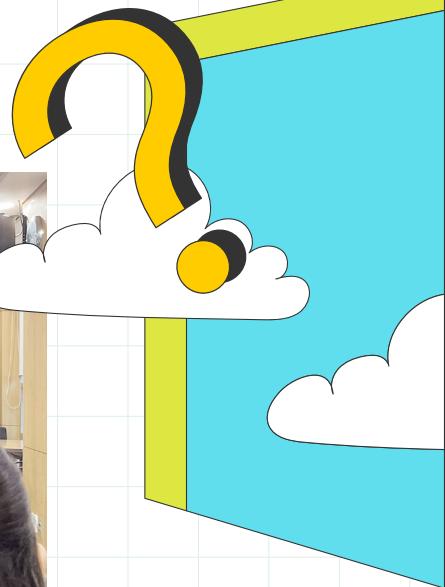
장애를 이해하며 약자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주디스 휴먼은 세계장애인기구 설립을 이끈 장애인 여성이다. 책은 소아마비를 앓아 훨체어에 탄다는 이유로 학교 입학을 거부당한 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싸웠던 그녀의 노력과 삶을 담담하게 그려준다. 사회가 보고 싶다는 않다는 이유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의 인권이 보호받기까지 어떤 치열함이 있었는지를 깨달으며 가슴이 아프게 읽게 되는 책이다. 그러면서도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주디스 휴먼의 진솔한 도전은 끝까지 책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우리를 이끈다. 장애 이해 교육에 있어 필독서로 꼽을 만하다.



안 광 복 철학자/중등고등학교 교사

‘일상에서 철학하기’를 실천하는 임상 철학자. 서강대학교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동대학원에서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 중등고등학교에서 철학교사로 재직 중이다. 『철학, 역사를 만나다』 등 10여 권의 철학 교양서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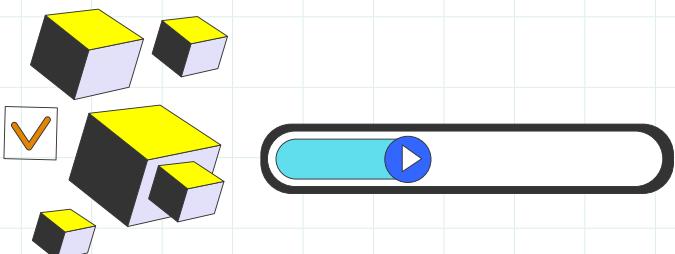
시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회세미나

ChatGPT와 생성형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

ChatGPT와 생성형 AI의 윤리적 이슈와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취재기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산업 전반은 물론 교육계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다른 아닌 ChatGPT입니다. 지난 5월 19일 금요일 국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생성형AI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참사람 36.5도가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달드립니다.



ChatGPT, 생성형AI의 저작권 침해 이슈와 해결 방안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양진영 변호사 겸 변리사께서는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 이슈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님은 특히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전문가 관점의 의견을 전했지요. 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제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법 상 AI를 권리 주체로 인정할 수 없기에 개발자, 서비스 운영자, 이용자 등 여러 주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귀속 사례로는 2022년 인공지능이 시집을 출간했는데, 개발사인 카카오브레인 등이 저작권을 소유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에 인간이 추가적으로 창작적 요소를 기미 했다면 이 또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I가



만든 그림을 새롭게 편집 및 배열, 스토리가 담긴 만화로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해주었던 판례가 존재합니다.

변호사님은 이미지 제공 기업 셔터스톡이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촬영자 혹은 저작권 보유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 ‘셔터스톡 컨트리뷰터 펀드’를 마련했던 케이스를 중요한 사례로 전하며,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 가지 가치를 근거로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윤리기준이 마련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해주었습니다.

생성형AI 기술의 악용 이슈와 해결 방안

이어서 상명대학교 AI인증센터 이지항 센터장께서 AI의 기술 악용 이슈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지항 센터장님은 AI의 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문제를 ‘목적과 의도를 갖춘 악용’과 ‘인공지능의 실수 등에서 비롯된 오용 및 남용’으로 구분지었습니다.

예컨대 최근 문제가 되었던 딥페이크(인물의 얼굴 및 신체 합성 기술)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 가명 처리, 얼굴 이미지의 익명화 등의 긍정적 활용을 기대했으나 실제 음란물 제작에 활발히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특정 정치인의 가짜 인터뷰 영상, 가짜 사진 등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나, 사용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순간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윤리관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오용과 남용의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AI가 실수를 저지르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 데이터에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유럽, 북미, 동아시아 등 지극히 한정된 지역에서만 데이터를 제공받기 때문이지요. 센터장님은 대응의 핵심은 기술의 양성화이며, 안전한 활용과 도입을 촉진하여 대국민 홍보와 교육, 안전 활용지침 마련 및 배포 등으로 AI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생성형AI의 교육과 교육계에의 영향 및 해결 방안

세 번째로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님께서 생성형AI가 교육계에 미친 영향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교수님은 교육계의 타격을 실감하며, 모 대학 학생이 챗GPT가 알려준 답을 그대로 제출해 80명 중 22등을 했던 사례를 전해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AI 리터러시〉 교육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AI 리터러시는 인공지능 생성물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 AI 기술과 도구를 이해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 등을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은 아래와 같은 15가지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챗GPT에 대한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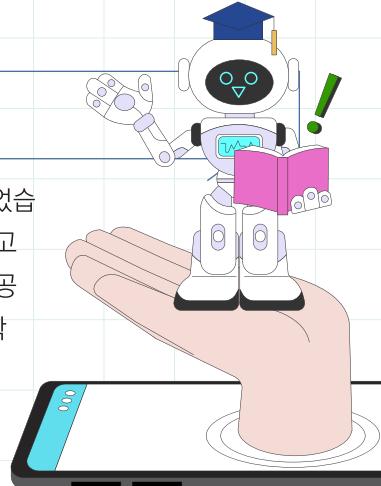
1.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 hallucination 위험
2.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는 불공정 위험
3.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는 오토 프로파일링 Auto-profiling(개인정보의 자동처리)
4. 결과물 출력에 포함되는 크고 작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
5. 합성출력물의 무한반복학습에 따른 인류문명의 다양성 침해
6. 소수의 기업이 독식하는 글로벌 독과점의 심화
7. 천문학적 에너지 소모 및 아동 노동 착취 이슈
8. 보안과 관련된 취약점
9. 프로그램을 더 낮은 버전으로 회귀하여 사용자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탈옥의 위험
10. 학습데이터 및 대화록 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의 유출 위험
11. 사용 적정 연령 제한에 대한 현실적 미이행
12. 메타버스, 버추얼 휴먼 등과 추가 결합을 통한 중독, 남용, 오용의 추가 위험
13. 인공지능에 대한 의인화 현상에 따른 관계 대체 및 관계 왜곡의 위험
14. 이용자의 명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서 악용될 위험
15. 인공지능에 의한 가스라이팅 위험

교수님은 지금이 시대적 전환을 맞이한 시점이라며, AI는 기존의 메타버스와 같은 한때의 열풍이 아닌 교육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미래인재의 역량에 'AI역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때문에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고 현명하게, 윤리적으

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일례로 AI와 소통을 잘 할수록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AI와 함께 하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죠.

심화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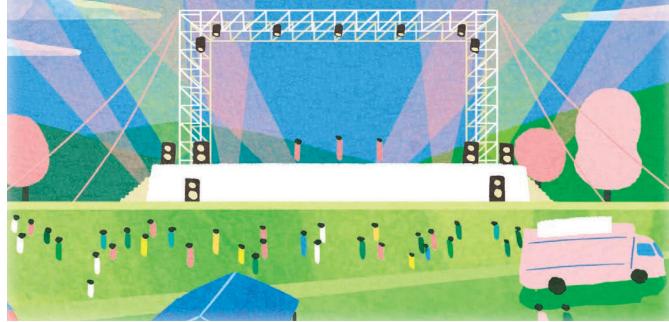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심화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오고 갔는데요, 특히 노원구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신승인 교장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원 간 인공지능 스터디 모임이 활발히 운영되며 교과목에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있다고요. 국어의 경우 한국어가 서툰 외국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간단한 작문을 주문하고, 이를 참고하여 스스로 다시 작성해보는 학습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어 과목은 본인이 만든 문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인공지능에게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의 단서로 활용하고 있고요.



심화토론과 함께 이 날의 세미나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 날 자리는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현 시점 교육계가 AI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으며 지혜로운 접목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생태계와 우리의 교육, 삶을 조화롭게 공존할 방법은 무엇인지 지속적인 연구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6월, 청소년을 위한 전국의 페스티벌·문화행사 안내

여름의 열기가 조금씩 더해지는 6월,
청소년 여러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 좋은
전국의 페스티벌과 행사를 소개합니다.



#6월페스티벌 #청소년문화행사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장소 태백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문의 2403koy@naver.com
#강원도 태백

제30회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 2023. 6. 3(토)

태백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한 뮤직 페스티벌. 청소년들이 직접 노래를 뽐내는 가요 무대는 물론 군무 등 다양한 특별 경연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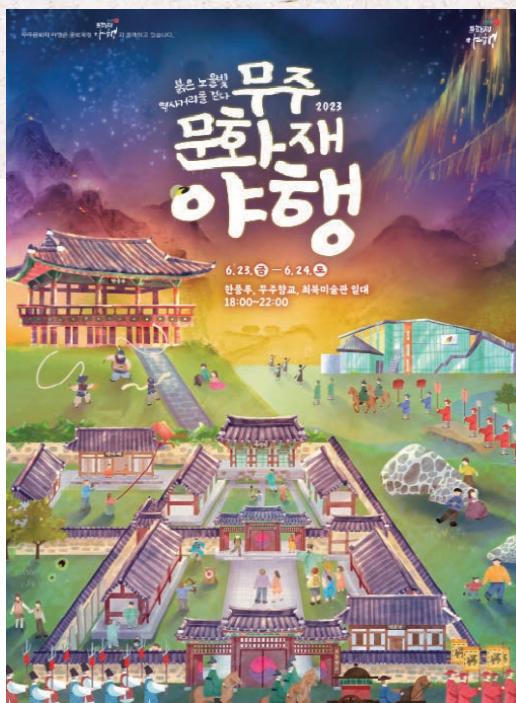
장소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
#울산광역시



2023 전국 청소년 가요제

2023. 6. 4(일)

가수가 꿈인 청소년들 주목! 울산 청소년들의 대표 축제인 '청소년 가요제'가 올해도 개최된다. '청소년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아래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예선을 통과한 합격자들의 열띤 가요 경연으로 진행되며, 이외 비보이 댄스, 타로카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한다.



무주 문화재 야행 2023년 6월 23일(금)~24일(토)

무주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유산, 자연문화유산을 '밤'이라는 테마 아래 만나보는 이색 축제. 시원 밤에 이루어지는 문화재 해설부터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 개방, 다도 체험 등 우리문화유산의 얼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장소 무주향교 일대
#전라북도 무주





장소 양주덕계공원 야외무대

#경기도 양주



양주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2023. 6. 17(토)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봄내며 공연 경험을 쌓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양주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passion'. 경연을 통해 가장 멋진 실력을 보여준 팀에게 시상도 진행한다.



장소 DGB대구은행파크

#대구광역시



제3회 떡볶이 페스티벌

2023. 6. 17(토)~18(일)

지난 2020년 대구시 한 공무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깜짝 흥행을 일으킨 '떡볶이 페스티벌'이 올해도 개최된다. 다양한 떡볶이를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리마켓, 체험부스, 포토존, 현장 이벤트 등이 마련될 예정.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SFF

2023. 6. 17(토)~18(일)

세계 도시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세계도시 문화교류축제. 올해는 '넘나드는 세계, 하나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더욱 다양한 공연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월드 뮤직 스테이지, 세계 관광 흥보전, 세계 동화 체험전 등 청소년의 가슴을 뛰게 만들 지구촌 문화를 가득 담았다.

장소 서울광장/청계광장/무교로 일원

#서울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네컷툰
수상작품 소개

주제:
내 주변의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감사합니다!

글&그림. 정민

감사합니다!



포항예고 정민



그동안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던 이들을 저의 그림 속으로, 한 자리에 초청해 보았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주는 친구와, 나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묵묵히 힘 써주시는 환경미화원분들, 그리고 부모님!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희망

글&그림. 소은



신천중학교 박소은



학교 친구들 중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했던 친구들을 회상하여 그려보았습니다. 짧은 컷 안에 모든 내용을 제대로 넣을 수 없었지만, 당시 무언가를 포기할 뻔했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의 주제는 고마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그 친구들 덕분에 내 희망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남이 내 희망을 대신 책임져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준 것이 고마워서 그려봤습니다.

집에서 시작하는 엄마표 경제교육 노하우 특강 스케치



주식, 펀드, 부동산, 코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학별과 월급만으로는 아껴 쓰고 저축해서 집 한 채를 마련하기도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많은 부모님이 자녀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인 나도 잘 몰라서 자

녀 경제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5월 11일과 18일, 2주간 '돈을 아는 아이는 꿈이 다르다' 성유미 저자와 함께 학부모님 110여 명을 모시고 비대면 경제교육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꿈이 다른 아이로 키우는
엄마표 경제교육 7단계

노동의 가치 1단계. 집안일을 함께 해요. 재미있게!
돈 모으기 2단계. 그에 대한 대가(용돈)을 주세요
돈 모으기 3단계. 저축의 기쁨을 알게 하세요
현명한 소비 4단계. 현명하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쳐요
현명한 소비 5단계. 집 밖에서 돈을 버는 경험을 해봐요
현명한 소비 6단계.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이해해요
기부가 청신 7단계. 꿈과 재능의 열매를 세상에 나누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성유미 강사님께서 '엄마표 경제교육 7단계'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집안일과 용돈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근로소득을 이해시켜주는 과정, 저금통을 쪼개면서 소비와 저축, 투자, 기부에 대한 이해를 돋는 과정, 아이들에게 선택의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하고 일상에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이야기를 하며 자본주의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배우는 과정들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주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돈 공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경제교육과 노후준비를 모두 잡는 엄마들의 돈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노후에는 대출없는 거주 공간, 안정적인 생활비, 심적·경제적 자녀들의 독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노후준비를 위해 자녀들의 빠른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

습니다. 또한, 나를 알아가는 자기계발을 통해 메타인지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 일상을 경제교육 현장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해주시며 아이들과 부모 모두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여러 생활 팁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이제 자녀 경제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의 높은 신청률과 뜨거웠던 현장 반응에서도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는 가정 내에서 경제교육을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얻었다는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저축과 소비, 투자에 대해 습득하여 올바른 경제관념을 갖고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시작하는 부모님표 경제교육을 응원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

거주공간 (대출없는)
매월 생활비 (안정적인)
자녀들 독립 (심적/경제적)

2023 교보교육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오신 분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4개 부문, 총 상금 1억 2천만 원)



후보자 자격

교육을 통해 사람을 참되게 키우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시상내역

4개 부문 총 상금 1억 2천만 원 및 상패
(부문별 대상(大賞) 상금 각 3천만 원)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보자 추천서 1부, 후보자 공적서 1부

제출방법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
(<https://www.kbedu.or.kr>)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마감

2023년 6월 18일(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시상부문

참사람육성

정직, 성실한 성품을 함양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여
타인 · 공동체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참사람'을 키우는데 기여한 개인

창의인재육성

도전과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성을 함양하여 인문, 예술, 과학 분야 등에서 사회
발전과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인재'를 기르는데 기여한 개인

평생교육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는 평생학습 정신을 기초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돋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미래혁신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영역 및 교육도구, 선도적인 교수법과 교육방법론, 미래지향적인
콘텐츠 등 미래교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 또는 단체(또는 기관, 기업(스타트업 포함))



교보교육대상은 교육이 곧 '참사람 육성'이며, '민족의 미래'라는 대산(大山) 신용호 선생의 교육이념을 시대적 가치로
확산하고, 세계 최초 교육보험 창안과 교보문고 설립을 통해 국민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한 교보생명의 '국민교육진흥'
창립이념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자 제정된 상입니다.

참사람 36.5°C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